

선교사의 섬김

- 김사무엘 선교사 / 2002.03.22 -

저는 지난주간 일본 중부지방인 나고야에서 한 시간쯤 더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한 가미하라의 한 교회에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가 일본 사역을 마칠 때인 92년에 개척된 교회로,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교회로 출발한 후에 저희는 곧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담임 교역자가 없이 여러 목사와 선교사들의 섬김을 통하여 성장하여 오다가 전임 교역자를 모신 것이 이제 3년이 된 교회입니다. 장년 출석 인원이 70여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30여명이 넘는 일본에서는 중형 교회이며, 교회 건물의 부지를 280평이라는 큰 땅을 구입했고 3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의 건축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섬김으로 10여년 전에 개척이 됐고 그 동안 전임 교역자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꾸준히 성장했을까, 또 교회 위치가 일본의 전형적인 시골과 소도시가 섞여있는 그러한 환경인데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특별히 전임 사역자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성장한 것이 과연 건강할까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 교회의 성장과 영적 상태를 검증하거나 평가할 때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초대 교회의 순수한 모습이므로, 런던 Bible College 총장인 Michael Green 박사가 요약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생적이요 자연적인 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안에 살아 역사 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억누를 수 없어 이웃에, 시장 터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안에 일어난 변화를 대화와 교제 속에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구원을 가져오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이 지극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하였고 지나치게 성직자를 인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하심에 매우 민감하고 또 즉시 순종하여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무엇이든지 따랐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융통성 있게 환경에 적응하여 전 지역 사회의 집단 개종까지도 가능케 한 새로운 운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임재와 순종이 확연하게 역사하신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증거가 이 일본 시골 교회에 지난 10년간 계속적으로 있어 온 증거들을 발견하면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경험 속의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가정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평신도 성경공부가 있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평신도끼리 차례를 정하여 한 가정을 개방하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공부의 모임을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개인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이 모임을 쉬지 않고 지속하므로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졌을 뿐 아니라 교회의 핵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교회 자체를 안정케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중심에는 한 헌신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매가, 목숨을 다하여 이 모임을 섬기는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교회의 오늘을 보면서 친교의 영향을 최대한 이용하여 개인적인 관계를 심화 시켰으며, 가정의 모임을 중심으로 교제를 이루어 왔고,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여 지식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 전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교회의 기본이 갖추어져있는 교회,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고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발전, 성장하는 교회가 오늘도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고무적인지요.

이와같은 교회들이 선교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곳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